

## 고등학생의 일탈행동 영향요인 분석\*

윤 영 미·최 명 숙<sup>1)</sup>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일탈행동은 사회적 규범이나 기대를 위반하는 행동이다. 일탈은 사회규범에 따라 정해지는데, 규범은 때와 장소에 관련되므로 일탈 역시 때와 장소에 따라 관련지워진다. 즉, 일탈행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문화적 규범의 허용한계를 벗어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흔히 비행과 같거나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용납이 되는 가치판단의 기준을 위반하는 모든 탈선행위를 일컬으며, 이와 같은 행위는 대개 사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김공영, 1992; 함중환, 1982).

청소년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신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인 발달과정을 통하여 매우 큰 변화를 경험하면서 가정과 학교중심의 생활환경 속에서 많은 갈등과 고민을 안고 있다. 특히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대부분이 입시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진학을 위한 과외활동, 학원수강, 집단적인 학교 규율에 얽매어 있는데다 부모로부터 지나친 기대를 받음으로서 더 많은 정신적 갈등과 압박을 받고 있다. 더욱이 현대사회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가치관의 혼란을 일으키게 하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 안에서 고등학생들은 학업문제, 가족내 갈등, 이성문제, 경제생활 등과 같은 상황적 스트레스까지 겹쳐 있어 자아정체감이 결여되거나 욕구불만과 갈등으로 일탈행동이나 비행행동과 같은 부적응

행동을 불러일으킨다. 즉 여러가지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나기 때문에 적응능력이 부족한 고등학생들은 변화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서적인 불안감이나 부적응 문제가 유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강영자, 1995). 그 결과 고등학생들의 부적응 행동인 일탈행동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데, 고등학생들의 주요 일탈행동으로는 흡연, 음주, 무단결석, 환각제 경험, 가출, 불량서클 가입, 유흥업소출입, 협박, 폭행, 물건절도, 기타 학교교칙 위반 등을 들 수 있다.

일탈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개인적 요인이라 함은 성격 또는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며, 상황적 요인은 주변환경을 말하는 것으로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을 들 수 있다(김진혜, 1995; 김용엽, 1997; 하도선, 1998; 이호숙, 1999). 성장기에 있는 인격형성 과정의 고등학생은 주변의 생활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가정이란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의 장이며 일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가정환경 중 부모의 자녀에 대한 거부적 태도와 애정결핍, 부모의 억압과 무관심, 부모와의 대화와 이해부족, 유대감 부족, 사회적 지지부족이 일탈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으며(Brook, Brook, Rosa, Whiteman & Montoya, 1999), 특히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부모의 강압적 대응이 아이들에게 공격성 행동의 모델로 작용하게 되며, 공격적 행동이 타인을 통제하는 수단임을 배우게 된다(Eron, 1982). 반복되는 강압적인 가족관계가 공격성 발달을 촉진하며 이런 아이들은 사춘기에 반사회적 행동으로 발전하게 된다(Patterson, 1986). 공격성이

주요어 : 일탈행동, A형 성격, 공격성, 충동성,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 본 연구는 서일대학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임

1) 서일대학 간호과(교신저자 윤영미 E-mail: profen@seoil.ac.kr)

투고일: 2003년 6월 27일 심사완료일: 2003년 7월 14일

란 성격을 설명하는 특성으로 언급되기도 하지만 환경적인 영향도 받는 특성으로 어린시절의 공격성은 성인으로 성장한 후의 약물사용 및 비행행동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Brook, Whiteman, Finch & Cohen, 1996; Patterson, 1982). 또 하나의 중요한 환경으로는 학교환경으로 입시와 공부에 대한 부담감과 희망없는 따분한 분위기, 교사의 편애와 처벌, 획일적 교육방법 등이 고등학생에게 영향을 준다. 또한 사회환경으로는 유흥업소와 유해 업소, 불량도서관과 퇴폐영상, 약물남용 등의 비교육적 환경이 언급되고 있다. 고등학생들은 이런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긴장감등을 해소하기 위해 일탈행동을 하게 되며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특성 또한 일탈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Cleckley, 1976; Gorenstein & Newman, 1980; 조은경, 1997; 허규, 1999). 즉 충동성이 강한 사람은 조금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며 모험상황을 더 선호하며 무계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비행행동을 하게 된다(Barratt, Patton, Olsson & Zuker, 1981; Barratt & Patton, 1983). 아동기의 충동적 행위는 범죄나 약물남용과 같은 문제행동을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고(O'Donnell, Hawkins & Abbott, 1995), 충동성이 높을수록 공격행동, 규칙위반, 과소행동, 절도, 성비행, 약물남용들의 비행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경, 1995; 허규, 1999). Booth와 Zhang(1996)는 청소년의 충동성을 사정하고 체계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관련된 문제행동과 일탈행동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동안 비행청소년들의 비행행위와 심리적 특성간의 연구를 살펴보면 비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충동성과 공격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들고 있다(Howells, 1986; Alberti & Emmons, 1970; Moffit, 1993). 이밖에 Krueger(1999)는 성격적인 특성에서 부정적인 정서가 높으면 불안, 약물남용, 반사회적인 인격적 질환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원호택(1993) 또한 성격적인 면에서 신경증적인 성향이 높으면서 외향적인 성향이 높은 사람은 범죄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고, 완고한 성향이 높은 사람은 반사회적인 성격장애자와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며 재범율도 높다고 보고하였다.

인간의 행동은 개인과 환경 두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 비행행동을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환경적인 요인 어느 한가지로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으므로(윤덕중, 1991),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환경적 요인 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개인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성격, 충동성 및 공격성과 일탈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들 요인과 일탈행동과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하여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일탈행동을 이해하며 지도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고등학생의 일탈행동 정도를 파악한다.
- 일탈행동과 예측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일탈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파악한다.

### 용어정의

#### · 일탈행동(Deviant Behaviors)

한 사회의 행동규범을 어기고 자기가 원하는대로 하는 행동을 뜻한다. 즉 이탈, 탈선, 이상행위로 간주한다(권희환외, 1994). 본 연구에서는 기존문헌을 기초로 연구자가 작성한 일탈행동 질문지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 공격성(Aggression)

공격성이란 타인에게 상해를 가할 목적을 지닌 신체적, 언어적 행동과 위협적인 자기방어 태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을 담은 사고 및 정서를 의미하며(곽금주, 1992). 본 연구에서는 Buss와 Perry(1992)의 공격성 척도를 정동화(1995)가 번역하여 사용한 설문지를 연구자가 수정한 공격성 질문지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 충동성(impulsivity)

사고나 행동이 단순하고 감정적이며, 어디에 속박되거나 제약을 받지 싫어하고 자제력이 약하여 기분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흥분을 즐기는 인성특성을 의미하며(이상노, 1986), 본 연구에서는 이민중(1998)이 개발한 충동성 질문지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사회적 지지망의 기능적 속성과 구조의 속성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제공받은 지지정도와 사회망의 구성원을 통해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 및 지지욕구의 충족 정도를 반영해주는 자신의 사회관계의 유대감, 자신감, 신뢰감에 대한 지각정도를 말하며(박지원, 1985) 본 연구에서는 박지원(1985)의 사회적지지 측정도구와 Cohen과 Hoberman(1983)이 개발한 대인관계지지 평가척도를 기초로 연구자가 수정한 사회적지지 질문지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 스트레스(Stress)

스트레스란 개인의 외적인 환경과 유기체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환경적인 자극을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인 부담으로 지각하는 현상(Bell, 1977)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 사건을 의미하는 스트레스 근원과 스트레스 근원으로 인하여 어떤

장애 및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스트레스 장애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해림(1986)이 제작한 '대학생을 위한 스트레스 대응 질문지'를 기초로 하여 수정한 스트레스 질문지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 A형 성격유형(Personality Type)

A형 성격은 적은 시간내에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투하며, 만일 다른 사람이나 일이 방해가 될 때에는 그것에 대해 공격적인 방식으로 대항하는 사람들에게서 관찰될 수 있는 특징적인 행위와 정서의 복합체를 의미하며 (Friedman & Rosenman, 1974), 본 연구에서는 서정관(1995)의 A형 성격유형 검사지를 수정하여 작성된 질문지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연구 방법

###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일탈행동 영향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 연구대상

서울시에 소재한 2개 고등학교의 1, 2, 3학년 남녀 고등학생을 편의 표집하여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를 수락한 7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불충분한 응답을 한 53명을 제외한 69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응답률은 92.9%이었다.

###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2002년 10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방법은 자가보고식 설문방식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기록하게 한 뒤 회수하였다.

### 연구도구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지의 내용은 일반적 특성 18문항, 일탈행동 21문항, A형 성격유형 17문항, 공격성 18문항, 충동성 20문항, 사회적 지지 26문항, 스트레스 6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 일탈행동 측정도구

일탈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는 하도선(1998), 김용업

(1997), 최옥분(1995)의 연구에서 보고된 일탈행동을 기초로 본 연구자에 의해 작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일탈행동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4로 나타났다.

#### • A형 성격유형 검사도구

A형 성격유형검사는 Matthews(1982)가 개발한 청소년건강척도 MYTH(Matthews Youth Test for Health)를 우리의 사회문화적 현실에 알맞게 변안하여 사용한 서정관(1995)의 A형 성격유형 검사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7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다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A형 성격유형검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A형 성격 정도가 높은 것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A형 성격 정도가 낮음을 의미하고, 평균이상이면 A형 성격, 평균이하일 때는 B형 성격이라고 한다. B형 성격은 A형 성격에 대응되는 유형으로 A형 성격의 사람들이 표출하는 특성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을 규정하는 것으로, 태평하고 여유있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행동을 의미한다.

#### • 공격성 측정도구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는 Buss와 Perry(1992)의 공격성 척도를 정동화(1995)가 번역하여 사용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신체적 공격성 5문항, 적의성 5문항, 언어적 공격성과 타인에 대한 의심 5문항, 분노 3문항의 4영역 총 18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마다 매우 그렇다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전체 내적 일관성신뢰도 Cronbach's alpha .83이었다.

#### • 충동성 측정도구

충동성 측정도구는 이민중(1998)이 개발한 충동성 20문항, 4점 척도를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전체 내적 일관성신뢰도 Cronbach's alpha .84이었다.

#### •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한국형 사회적 지지 검사도구를 황윤경(1995)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24문항의 도구와 Cohen과 Hoberman(1983)이 개발한 대인관계 지지 평가척도를 기초로 하여 문성원(1990)이 변안한 45문항의 도구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26문항의 도구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

회적 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하위영역으로는 정보 적지지 5문항, 물질적지지 7문항, 평가적지지 5문항, 소속감지 지 4문항, 정서적지지 5문항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전체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4이었다.

• 스트레스 측정도구

최해립(1986)이 제작한 ‘대학생을 위한 스트레스 대응 질문지’를 기초로 하여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학교 생활, 가정생활, 대인관계, 학생자신 4개의 영역에 대해 고등 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근원, 스트레스 장애에 관해 총 69 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마다 매우 그렇다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영역에서 스트레스 근원이 많으며 스트레스 장애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전체 내적 일관성신뢰도 Cronbach's alpha .96이었다.

자료분석방법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대상자의 특성 및 연구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를 구하였고 2)연구변수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3)일탈행동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일탈행동의 영향변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규명하기 위해 처음 시도된 연구로서 일탈행동과 5개 개념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연구하였을 뿐 좀 더 많은 영향변인들이 조사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남학생 347명, 여학생 350명으로 거의 비슷한 수적분포이었으며, 학년별 분포는 1학년 120명, 2학년 462명, 3학년 115명으로 2학년이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중 319명(59.7%)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중 기독교가 245명(35.2%)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642명(92.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출생순위는 맏이가 332명(47.6%)으로 가장 많았고, 막내가 242명(34.7%), 외동이 60명(8.6%), 중간이 56명(8.0%)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이 모두

살아 계시는 경우가 641명(92%), 아버지만 계시는 경우가 7명, 어머니만 계시는 경우가 14명,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가 25명, 별거한 경우가 8명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47.1세,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43.9세이었으며,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303명(43.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대졸, 대학원졸, 중졸, 초등졸, 무학 순이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도 고졸이 349명(50.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대졸, 중졸, 초등졸, 대학원졸, 무학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교육방식에서는 나의 의견을 존중하신다가 508명(72.9%)으로 가장 많았으며 모든 것을 부모님위주로 한다가 104명(14.9%), 내가 하는 일에 상관하지 않으신다가 75명(10.8%)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연구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

성격유형에서는 평균 3.17점으로 A형 성격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격성은 2.97점, 충동성 2.91점으로 도구의 중간값인 2.5점에 비해 공격성, 충동성 정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3.88점으로 사회적지지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스트레스는 2.61점으로 도구의 중간값인 2.5점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일탈행동은 1.59점으로 도구의 중간값인 2점에 비해 고등학생의 일탈행동 정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 (n=697)

변수	평균(SD)	최소	최대
성격유형	3.17(.55)	1	5
공격성	2.97(.58)	1	5
충동성	2.91(.56)	1	5
사회적 지지	3.88(.63)	1	5
스트레스	2.61(.62)	1	5
일탈행동	1.59(.54)	1	4

연구변수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예측변수인 성격유형, 공격성, 충동성,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는 성격유형과 스트레스와의 관계 (-.01)를 제외한 모든 관계에서 .11 ~ .65의 범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예측변수들과 종속변수인 일탈행동과는 모두 .20 ~ .40의 범위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위의 상관관계 결과를 토대로 각 변수들의 일탈행동의 설명력을 검증하기 전 연구변수간의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들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의심되어 다중공선성 검사를 시도하였다. 이는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고려하여 보았는데, 보통 VIF는 가장 큰 값이

5-10을 넘으면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판정하는바, 본 연구변수에서는 VIF값이 5를 넘는 것은 없었다<표 3>.

<표 2> 연구변수간의 상관관계 (n=697)

	X <sub>1</sub>	X <sub>2</sub>	X <sub>3</sub>	X <sub>4</sub>	X <sub>5</sub>
X <sub>1</sub> 성격유형					
X <sub>2</sub> 공격성	.44**				
X <sub>3</sub> 충동성	.43**	.65**			
X <sub>4</sub> 사회적 지지	.18**	-.16**	-.11**		
X <sub>5</sub> 스트레스	-.01	.47**	.35**	-.46**	
Y 일탈행동	.20**	.31**	.40**	-.20**	.25**

\* p<.05, \*\* p<.001

<표 3> 다중공선성 검사 (n=697)

변수	DF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성격유형	1	1.31
공격성	1	1.91
충동성	1	1.28
사회적 지지	1	1.08
스트레스	1	1.44

일탈행동 영향요인

선행연구에서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제시된 각 변수들을 단계별 회귀분석한 결과, 고등학생의 일탈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충동성, 사회적지지, 성격유형으로 이 세가지 변수가 일탈행동을 18.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변수들인 공격성, 스트레스는 일탈행동을 설명하는데 유의하지 못하였다<표 4>.

<표 4> 일탈행동 영향요인 (n=697)

변수	$\beta$	std. error	t
충동성	.33	.04	8.89***
사회적 지지	-.15	.03	-4.91***
성격유형	-.08	.04	2.21*
상수	.94	.16	5.73***
F=54.07***			
Adjusted R <sup>2</sup> = .18.6			

\* p<.05, \*\* p<.001, \*\*\* p<.0001

일탈행동에서 평균이상 값을 나타낸 대상자와 평균이하 값을 나타낸 대상자로 나누어 일탈행동에 영향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균이하 값을 나타낸 대상자의 경우에는 일탈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충동성이 일탈행동을 3.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이상 값을 나타낸 대상자의 경우에는 사회적 지지와 충동성이 일탈행동을 23.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일탈행동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일탈행동에 영향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일탈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충동성이 일탈행동을 18.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충동성과 사회적 지지가 일탈행동을 20.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논 의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일탈행동 정도는 평균 1.59점(최저 1, 최고 4)으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표 5> 하위그룹간 일탈행동 영향요인 (n=697)

평균이하값을 나타낸 대상자				평균이상값을 나타낸 대상자			
변수	$\beta$	std. error	t	변수	$\beta$	std. error	t
충동성	.07	.02	4.07***	사회적 지지	-.33	.04	-7.36***
상수	1.07	.05	21.45***	충동성	.24	.05	4.55***
				상수	2.58	.25	10.15***
F=16.56***				F=42.51***			
Adjusted R <sup>2</sup> = .036				Adjusted R <sup>2</sup> = .232			

\* p<.05, \*\* p<.001, \*\*\* p<.0001

<표 6> 하위그룹간 일탈행동 영향요인 (n=697)

남학생				여학생			
변수	$\beta$	std. error	t	변수	$\beta$	std. error	t
충동성	.40	.05	8.85***	충동성	-.32	.04	7.22***
상수	.57	.14	4.19***	사회적 지지	-.18	.04	-4.69***
				상수	1.24	.22	5.70***
F=78.33***				F=44.67***			
Adjusted R <sup>2</sup> = .183				Adjusted R <sup>2</sup> = .201			

\* p<.05, \*\* p<.001, \*\*\* p<.0001

인문계 고등학생에 비해 실업계 고등학생의 일탈행동율이 높다는 안귀덕(1997)과 안영순(1999)의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본 연구대상자를 인문계 고등학생으로 제한한 이유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일탈행동의 영향요인으로 고려한 성격, 충동성, 공격성,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는 주로 기존문헌에서 고찰한 일탈행동의 영향요인 중 환경요인 즉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과 같은 상황적 요인과 성격 및 심리적 요인 등의 개인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는데, 이들 변수와 일탈행동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5개의 변인 모두 일탈행동과 .196 ~ .400의 범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등학생의 일탈행동에 충동성, 사회적 지지, 성격이 18.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충동성이 가장 높은 설명력이 있는 변수로 나타난 점은 충동성이 반사회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특질이고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비행을 반복하게 하는 성격요소라고 한 허규(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특히 충동적인 성격을 가진 청소년들은 취약한 환경에 처했을 때 비행을 하게 되며, 학업 성취에 방해가 되며 직간접으로 장래의 범죄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Gorenstein & Newman, 1980; Moffit, 1993). 또한 부정적인 정서를 행동으로 표출시켜주는 성격특질인 충동성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충동성이 공격행동, 규칙위반, 절도, 파손행동, 약물남용의 비행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 이미경(1995)의 연구결과와, 고등학생 733명을 대상으로 충동성과 사이버 비행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충동성은 지위비행, 성비행, 재산비행, 폭력비행과 모두 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폭력비행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보고한 라민오(2000)의 연구결과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범법행위를 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대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에 비해 충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조은경(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또한 고등학생의 일탈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충동성 다음으로 설명력있는 변수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의 사회적 지지도구가 기존 문헌에서 보고한 고등학생의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즉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에서의 사회적 지지내용을 포함하여 수정 보완 한 후 사용한 결과로 사료된다. 이는 부모의 애정, 성취기대가 클수록, 부모의 지원이 높을수록,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일탈행동은 낮아지며, 부모의 적대, 무관심, 거부의 정도가 크다고 지각할수록 일탈행동의 정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안영순(1999)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부모란 최초의 사회화를 위한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므로 이의 지지정도가 높을수록 일탈행동의 정

도가 높게 나타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서성화(1997)는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느냐에 따라 일탈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는데, 청소년시기는 어느 시기보다 친구집단이나 또래집단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크므로 이들로부터 받는 지지에 따라 일탈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지지만을 갖고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보다 악물을 더 많이 남용하거나 성관계를 더 많이 갖는 등 일탈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nnett, Bailey & Federman, 1999).

고등학생의 일탈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세 번째로 설명력 있는 변수로 나타난 변인은 A형 성격으로 이러한 결과는 A형 성격의 특성이 조급함, 참을성부족, 공격성, 쉽게 유발되는 적개심, 과도한 성취추구, 정력적, 분노, 경쟁심이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갖고 있어(Gastorf, 1980; Chusmir & Hood, 1986; Diamond, 1982; Friedman, 1969) 실험과제와 과제사이를 견디지 못하고 목표에 몰두하여 주변상황을 무시하고 통제 결핍상황에서 분노와 적대감을 드러내기 때문에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청소년기가 갖는 특징과 학생으로서 성취해야 할 과제가 많은 시기인 고등학생들은 성격적으로 성취지향적 성향이 강한 A형이 B형에 비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것이며, A형의 성격이 B형의 성격에 비해 과업을 성취하려는 열망이 강한데 이러한 성취열망이 일탈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는 없지만 성취열망이 높다는 것은 실패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며 이러한 실패가 스트레스 상황을 유발시켜 결국 A형의 성격의 경우 일탈행동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일탈행동에서 평균이상 값을 나타낸 대상자와 평균이하 값을 나타낸 대상자로 나누어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본 결과, 일탈행동 정도가 낮은 대상자의 경우에는 일탈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충동성이 일탈행동을 3.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탈행동정도가 높은 대상자의 경우에는 사회적 지지와 충동성이 일탈행동을 23.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사회적 지지가 일탈행동 정도가 높은 고등학생에게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는 일탈행동 정도를 낮추기 위한 간호중재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사료된다. 즉 일탈행동 정도가 높은 고등학생의 가정, 학교, 사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일탈행동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본 결과, 남학생의 일탈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충동성이 일탈행동을 18.3% 설명하였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충동성과 사회적 지지가 일탈행동을 20.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환경적 영

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여학생의 일탈행동을 중재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 사회적 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선행연구에서 단편적으로 제시된 일탈행동 영향변인인 성격, 충동성, 공격성,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를 예측변수로 하여 이들 변수들간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규명함으로써 고등학생의 일탈행동 경감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2개 남녀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 69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도구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거친 도구를 사용하였고 일부도구는 본 연구의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 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서술적 통계, 상관관계분석 및 단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고등학생의 일탈정도는 평균 1.59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성격유형, 공격성, 충동성,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는 성격특성과 스트레스와의 관계(-.007)를 제외한 모든 관계에서 .11 ~ .65의 범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예측변수들과 종속변수인 일탈행동과는 모두 .20 ~ .40의 범위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등학생의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은 충동성, 사회적 지지, 성격유형으로 이 세가지 변수가 일탈행동을 18.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변수들인 공격성, 스트레스는 일탈행동을 설명하는데 유의하지 못하였다.

일탈행동에서 평균 이상값을 나타낸 대상자와 평균 이하값을 나타낸 대상자로 나누어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결과 충동성 한 변수만 일탈행동을 3.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이상값을 취한 대상자의 경우에는 사회적 지지와 충동성이 일탈행동을 23.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탈행동에서 남녀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의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에는 충동성 한 변수만 일탈행동을 18.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충동성과 사회적 지지가 일탈행동을 20.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등학생의 일탈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은 충동성임이 확인되었고 사회적 지지 또한 고려해야 할 영향변인이 파악되었다. 따라서 고등

학생의 일탈행동 경감을 위한 간호에 충동성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지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간호중재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고 보겠으며 이들 변인들간의 더욱 명확한 관계규명을 위한 반복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 참고문헌

- 강영자 (1995).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원과 대처방안에 관한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비교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공영 (1992). 여고생의 일탈행동 실태와 원인지각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용엽 (1997). 고등학생의 성역할정체감이 사회적 적응 및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준호, 노성호, 고경임, 최원기 (1990).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공부압력을 중심으로. 청소년범죄연구 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진해 (1995). 청소년 일탈행동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라민오 (2001). 충동성, 인터넷 중독 경향과 청소년의 사이버 관련 비행의 관계.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청렬 (1999). 인문실업계열간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과 비행충동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학 (1999).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원인과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종미 (1998).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원인과 그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혜숙 (2000). 고등학생의 성격유형, 스트레스 수준, 대처방식의 관계.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호택 (1993). 청소년 범죄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 청소년범죄연구, 11.
- 유호순 (1999).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정도와 식행동과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덕중 (1991). 범죄와 소년 비행학(중판). 서울: 박영사.
- 윤석민 (2000). 고등학생의 성격 및 일탈행동유형에 따른 언어 사용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노 (1986). 성격과 행동의 지도. 서울: 중앙적성출판부.
- 이미경 (1995). 충동성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민중 (1998).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과 통제소재 및 비행충동간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호숙 (1999). 고등학생 일탈성향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광수 (2001). 고등학생의 통제소재와 스트레스 대처양식 및

- 정상경험과의 관계. 한국고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미애 (1998). 중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에 따른 스트레스 및 공격성의 차이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동화 (1995). 아동의 학교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부적응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완충효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우영 (1998). 스트레스 및 가족응집성에 청소년 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강대 수도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경 (1997). 충동성과 공격성향이 강력범죄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8(2), 125-178
- 최해림 (1986). 한국대학생의 스트레스 현황과 인지-행동적 상담의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하도선 (1998). 고등학생의 환경요인이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함중환 (1982). 청소년이해를 위한 접근. 서울: 상조사.
- 황천근 (1994). 고등학생의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 규 (1999). 충동성과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Alberti, R. E., & Emmons, M. L. (1970). Your perfect right: A guide to assertive behavior. SanLuis Obispo: Impact
- Aseltine, R. H., Gore, S. & Gordon, J. (2000). Life stress, anger and anxiety, and delinquency: An empirical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1, 256-275.
- Booth, R. E., & Zhang, Y. (1996). Severe aggression and related conduct problems among runaway and homeless adolescents. Psychiatric Services, 47(1), 75-80.
- Brook, J. S., Brook, D. W., Rosa, M. D. L., Whiteman, M., & Montoya, I. D. (1999). The role of parents in protecting Colombian adolescents from delinquency and marijuana use. Arch Pediatr Adolesc Med, 153, 457-464.
- Brook, J. S., Whiteman, M., Finch, S. J., & Cohen, P. (1996). Young Adult Drug Use Delinquency :Childhood Antecedents and Adolescent Mediators.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5(12), 1584-1592.
- Burnam, M. A., Pennebaker, J. W., & Glass, D. C. (1985). Time consciousness, achievement striving and the Type A coronary-prone behavior patter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4(1), 76-79.
-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63, 452-459.
- Cleckley, H. C. (1976). The mask of sanity(5th ed). St. Louis, MO: Mosby
- Ennett, S. T., Bailey, S. L., & Federmann, E. B. (1999). Social network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risky behaviors among runaway and homeless you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0(March), 63-78.
- Eron, L. D. (1982). Parent-child interaction, television violence, and aggression of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37, 197-211.
- Friedman, M., & Rosenman, R.H.(1974). Type A Behavior and Your Heart. New York: Knopf, 67
- Gorenstein, E.E. & Newman, J.P. (1980). Disinhibitory psychopathology: A new perspective and a model for research. Psychological review, 87, 301-315
- Krueger, R.F.(1999). Personality traits in late adolescence predict mental disorders in early adulthood: a prospective-epidemiologic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67(1), 39-65.
- Moffitt, T. E.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4), 674-701.
- O'Donnell, J., Hawkins J. D., & Abbott, R. D. (1995). Predicting serious delinquency and substance use among aggressive boys. Journal of Consult Clinical Psychology, 63, 529-537.
- Patterson, G. R. (1986). Performance models for aggressive boys. American psychologist, 41, 432-444
- Patterson, G. R. (1982). Coercive family process. Eugene, OR: Castalia. Paulhus.
- Resnick, M. D., Harris, K. M., & Shew, M. (1997). Protecting adolescent from harm.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8(10), 823-832.
- Susan, C. (1992). Promoting health through A developmental analysis of adolescent risk behavior. Journal of School Health, 62(9), 417-420.
- Wills, T. A. (1990). Multiple networks and substance use. Journal of Social & clinical Psychology, 9, 78-90.



## Affecting Factors of Deviant Behaviors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Yoon, Young-Mi-Choi, Myung-Sook<sup>1)</sup>

1) Department of Nursing, Seoil Colleg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Deviant Behaviors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Method:** Data was collected from October 8 to 31, 2002.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697 Korean High school Students(boys 347, girls 350), recruited from two High School located in Seoul.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the use of 6 Questionnaire that modified by the investigator. The data was analyzed by the SPSS win 10.0 program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 1) The mean of total item score the Deviant Behaviors scales was 1.59, which was slightly low. 2)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Deviant Behaviors, Type A Personality, Aggression, Impulsivity, Stress and Social Support( $r = .11 \sim .65, p < .001$ ), but It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Type A Personality and Stress( $r = -.01$ ). 3)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1) Impulsivity, Social Support and Type A Personality were the predictors of Deviant Behaviors and account for 18.6% of the variance in Deviant Behaviors. (2) Impulsivity account for 3.6% of the variance in Deviant Behaviors in Subjects with a lower degree of score the Deviant Behaviors. Impulsivity and Social Support account for 23.2% of the variance in Deviant Behaviors in subjects with higher degree of score the Deviant Behaviors. (3) Impulsivity account for 18.3% of the variance in Deviant Behaviors in High school girls (n=350). Impulsivity and Social Support account for 20.1% of the variance in Deviant Behaviors in High school boys (n=347). **Conclusion:** Impulsivity and Social Support account for Deviant Behaviors of High school Stud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nursing intervention to reduce the level of Impulsivity, to increase the Social Support in order to decrease the Deviant Behaviors.

Key words : Deviant Behaviors, Type A Personality, Aggression, Impulsivity, Social Support, Stress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Seoil college.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Yoon, Young-Mi

Department of Nursing, Seoil College

49-3, Myoenmok-dong, Jungrang-gu, Seoil 131-702, Korea

Tel: +82-2-490-7516 Fax: +82-2-490-7225 E-mail: profen@seoil.ac.kr